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순례자

발행인: 이 종 윤
편집인: 나 희 주
편집주간: 원 필 현
발행처: 서울 장로 교회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 화: 517-7651~5
F A 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전 2000 운동 “50일 전도 작전”

서울장로교회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21세기가 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도록 전 교인에게 전도 사명을 고취시켜 천국시민으로서 복음의 종인이 되게 한다”는 취지하에 오는 10월 첫주(3일)부터 50일동안을 특별전도 기간으로 결정하고 온 교회가 기도와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전 2000 운동본부에서는 구체적인 전도전략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주제: 사명받은 천국시민

표어: 잃은 양 찾아 하나님께 기쁨을

행동강령: 1) 쉬임없이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한다.

2) 가정과 이웃과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3) 자신은 모범을, 이웃에게 복음을, 하나님께 성령을.

기도제목: 1) 복음 전할 기쁨과 사명을 주옵소서.

2) 복음 전할 기회와 환경을 주옵소서.

3) 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4) 북한 땅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5)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교회당 신축을 허락하옵소서.

6) 한국교회 갱신운동이 복음증거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7) 비전 2000운동으로 다락방마다 배가되게 하옵소서.

실천사항: 1) 태신자 카드 작성은 10월 3일 주일에 예비카드를 배부하고, 1주동안 각자 기도한 후 10월10일 주일 낮 예배시 헌금시간에 헌금과 함께 헌금주머니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기록된 카드를 넣는다.

2) 성도마다 7주동안 매주일 7매 이상의 전도지와 순례자를 공급받아 한 주간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1인 1명 전도를 필수적으로 감당한다.

3) 70인 전도대를 조직하여 7주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시~4시(1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전도활동을 벌인다. 교구팀은 매주 수요일,

전도회 팀은 목요일, 다락방 팀은 금요일, 교회학교 팀은 토요일에 자체적으로 기도와 전도를 한다.

4) 이 기간 동안의 금요 철야시간은 금요 기도회(오후 9:00-10:30)를 중심으로 모이고 철야기도회는 자율적으로 계속한다. 기도회는 전도특강과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며, 특별히 10월 8일(금)은 이종윤 목사님을 모시고 “비전 2000”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며, 이날은 전교구가 함께 참여하여 기도회로 모인다. 이후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전교회가 참여하되 두 교구씩 주력교구를 정해 특별히 해당 교구 전식구들이 모여 함께 기도회로 모인다. (10/15-1.2교구, 10/22-3.4교구, 10/29-5.6교구, 11/5-7.8교구, 11/12-9.10교구, 11/19-11.12교구)

5) 이 기간동안 교회 예배 설교 테이프 보급을 확대하고 전도에 사용하기 위해 가격을 개당 500원으로 조정기로 한다.

6) 전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격려하는 뜻에서 전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별히 열심을 다해 전도한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하고 있다.

우리교회는 91년 10월 첫주부터 7주간 동안 준비 기도회를 다음, 50일째 되던 11월 24일에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을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하는 전도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서울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이번 기회에 폭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전 2000운동 본부는 마가복음 13장 27절을 주체 성구로, 찬송가 268장을 주체 찬송으로 정하고 21세기를 책임져야 할 서울교회가 전도에 불타는 사명을 고취시켜 온 가족과 이웃을 생명의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감당하기로 한다.

9월 학습·세례식 가져

우리교회는 지난 수요일(22일) I·II부 예배시간을 통하여 9월 학습·세례식을 가졌다.

이날 수세자들은 학습 13명, 세례 5명, 그리고 유아세례 1명으로 총 17명이었다. 이들은 철저한 예비교육과 6개월간의 신앙문답

과정을 거쳐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 신앙고백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울교회 학습·세례자로 선포되었다.

한편 사랑부(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세례 학습식은 오늘 주일 오후에 갖게 된다.



☐...죽은 조상앞에 무엇을 할까 생각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출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고전 10:23-33)



이종윤 목사

모든 것이 가하나이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V23)고 사도바울은 가르쳐 주셨다. 특히 바울은 본문에서 제물문제를 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자유문제와 삶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 기독교가 조상숭배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다려 보자.

1. 조상숭배(제사제도)는 우리 민족고유의 것이 아니며 그것은 우상숭배다.

기독교가 우리 본래의 것이 아니었다면 불교나 유교도 우리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사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의 많다. 조상대대로 물려온 것을 기독교인들이 파괴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다.

역사적으로 제사제도의 유래를 보면 중국의 주희(주자 1130-1200년경)가 유교철학을 만든후 우리가 소위 성리학(Neo-confucianism)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같은 조상숭배는 Asia나 Africa 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유교문화권에 속한 이들이 주로 수행을 하고 있다.

처음엔 위대한 업적을 남긴 황제에게만 제사를 지냈지만 그후엔 임금들에게까지 퍼졌고 나중엔 평민들도 자기 아버지가 훌륭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까지도 조상에게 제사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13세기 고려말에 정몽주·이색과 같은 이들은 사당을 짓고 성리학을 받아드렸지만 일반인들은 조상숭배를 위한 제사는 하지 않았다. 몇몇은 뛰어난 이들에게만 정치철학인 유교정신을 따라 제사를 지냈다.

우리나라 철에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불교가 무속신앙과 혼합된후 생겨진 것이지 윤회사상을 가진 불교에서는 본래 제사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성계가 고려를 물리치고 조선왕국을 건설하면서 불교대신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유교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이때부터 제사제도는 백성 전체에게 퍼져나갔다. 이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효도의 방편으로 조상을 숭배도록 백성에게 권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상숭배제도의 부당성을 몇가지 지적해 보자.

① 제사는 덕이 높고 명망있는 이들에게 하게 되므로 교육목적에 도움을 주어 죽어서 제사법이라고 언어먹으려면 이 세상에서도 덕을 쌓으려고 노력케 하였다. 이같이 정치인들의 정치도구로 시작된 이 제사제도는 중국인들의 것이지 우리조상들이 우리에게 고유한 미풍양속으로 전래해 준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조상숭배(제사제도)는 우리 민족고유의 것이 아니며 그것은 우상숭배다.

② 그들의 제사법엔 제문과 격식이 있다. 요즘엔 제방을 한문으로 쓸수 없어 제방도 없거나 한글로 써 놓고(경진생, 갑자생 해야 할 것을 1920년생으로 하면 동양귀신이 어떻게 한글이나 서력기원 날자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제사상도 사람기만큰 높은것은 사용하는 법인데 Apt로 이사다니다보니 제상이 아닌 밥상에 제물을 올려 놓으면 오히려 찾아온 귀신 푸대접으로 귀신만 노하게 할 것이다.

③ 부모 공경법이라기 보다는 기복신앙에 근거한 사상이다. 생존해 계실 때는 별로 돌보지 않던 자녀들이 체면저주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 조상숭배를 한다.

④ 죽은자와 산자의 영적교류는 불가능하다. 눅16장 <부자-거지나사로> 자기 형제 구원을 요청한 것을 보면 즉 직접 자신이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후의 인간영혼은 구원에 떠돌아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 간다(눅23:43, 전12:7)

⑤ 조상숭배 사상은 자연숭배사상에서 유래한다. 중국인들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일본인들이 이 땅에 오기 전 한반도엔 호랑이굴은 있어도 터널은 없었다. 자연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큰 죄였다. 자연이 인간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제물과 제주를 그 무덤 주위에 뿌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보호캠페인이 일고 있다. 어떻게 인간이 감히 자연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같은 자연주의에 근거한 조상숭배사상은 현대문화에 부적당하다.

⑥ 조상숭배를 조상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행사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도

잘못이다. 조상숭배는 분명히 종교행위다. 조상의 영혼을 불러 대접하겠다는 예배의식이 진행되므로 이는 기념행사라기보다는 우상숭배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상숭배를 위한 제사제도는

- ①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고
- ②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유교철학의 외래문화의 유산이며
- ③ 철학적으로 보면 과거 지향적인 순환적 시간관에 기인된 것이므로, 자

연주의적 세계관과 평민을 다스리기 위한 사회정치적 산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천주교에서는 이 제사제도를 우상숭배로 보지 않고 문화적 차원에서 해석하면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본래 천주교는 20C초엽까지 제사문제로 수많은 박해와 순교자를 낸 교회였는데 1939년 로마교황청인 Italy가 일본과 동맹을 맺고 그 압력을 받아 한국의 조상숭배와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닌 시민행사라고 발표함으로써 조상숭배대대로 순교한 80명의 순교자를 헛된 죽음으로 만들고 그들의 입장을 바꾸므로 오늘날의 천주교는 시제앞에서나 무덤에서 그리고 고인의 사진앞에 절하고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제2계명/내앞에 우상을 만들지 않고 거기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범하는 죄가 된다.

2. 조상숭배를 위한 제사와 양심자유문제

성경에 구체적인 제사나 가르침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vv25, 27, 28 양심을 위하여) 그러나 이 양심은 깨끗해진 양심도 있지만 아직도 부패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

그러나 경건생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하나님중심의 기도생활과 자기회생적 봉사생활을 하는 이들의 양심판단을 우리는 귀하게 본다.

가령 담배 피우는 것이 죄냐? -성경에 규제된 것이 없으므로 양심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 고린도교회에서는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 그것도 양심을 따라 결정하라고 바울은 가르쳤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양심자유에도 규범은 있어야 할 것이다. 양심법을 따라 결정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규범은 무엇인가?

i) V23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해야 한다.

ii) V23 타인에게 덕을 세워야 한다.

자유행사에 선행되어야 할것은 타인에게 유익한 것이나 그리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냐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억울한 해를 끼치고 부덕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물에 무슨 죄가 묻어 있는것 아니라 믿음이 약한 형제가 제물을 먹는 이를 보면 시험을 받게 되므로 v.31「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곧 자신과 타인에게 유해하고 부덕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양심자유를 누리되 그 규범을 바로 알고 수행해야 한다.

3.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을 바르게 정하고 하라.

성도가 세워야할 삶의 목적은

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v.31)

② 타인에게 구원의 유익이 되게 하라(v.33)

물질유익, 지식유익, 감정유익도 줄 수 있겠으나 구원의 유익을 주자.

③ 자신에게는 감사가 있게 하라(v.30)

이 세상 삶속에서 감사가 끊어지면 이미 의미와 보람은 상실된 것이다. 고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감사가 있어야 한다.

결론

결국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타인에게 구원의 유익과 믿음의 덕을 세우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자신은 양심자유를 갖고, 하나님 말씀안에서 감사생활을 하자.

추석절 예배 모범

추석절을 맞이하여 교역자의 도움없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순서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서울교회 모든 가정이 같은 순서와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편집자주).

1. 메시지

무덤을 넘어서

(벧전 1:24-25/눅 16:19-31)

오늘은 추석입니다. 높고 파란 새 하늘의 정기가 온 우주에 가득찬 추석 절기는 우리 민족이 일년중 가장 즐기는 명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즐거운 추석을 맞아 무덤을 찾아 갑니다. 그것은 실로 이상한 인생의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흙으로부터 왔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모든 인류의 역사와 경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은 짧고 덧없어 베드로는 본문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떨어지는 풀잎의 이슬 같은 인생은 어찌보면 무상해 보이기까지 해서 염세주의 또는 비관주의에 빠져 인생을 회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우기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 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 메말라 떨어지는 꽃처럼 시들어 버리는데 대한 공포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9:27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는 한 번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은 여러번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은 심판이 인생을 영원히 갈라 세운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 이편의 세계처럼 무덤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무덤 저편의 세계는 무덤 이편에서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눅16장에 한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표한 인물도 아니고, 따라서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죽어서 각각 다른 길, 즉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었으며 그 같은 결정은 그들이 죽기전 즉 무덤 이편에 살 때 그들 사이엔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소위 부자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이며 더우기 자기를 믿고 사는 인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주인되신 하나님보다는 자기 쾌락과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바랄 것도, 기뻐할 것도 없는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조개도 화려한 화환도 어찌면 엄숙한 장례식도 없이 땅에 묻혔지만 그는 약속의 나라 무덤 넘어와 천국을 그리워하며 그 나라의 주인되신 하나님만 믿고 산 성도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천국과 그 나라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 즉 부자와 거지의 무덤 이후의 세계에 대한 판정은 이미 이 세상에서 판가를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히 행하라'(15-16절) 하셨습니다.

2. 무덤 넘어에서 되어질 일

'그 날 이후(The day after)'라는 영화가 한 동안 세인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 무덤 넘어에 관한 얘기는 농담 자료가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우선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에 도전을 받습니다.

부자는 모든 재산을 잃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사는 천국을 얻게 됩니다. 부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나 하나님을 무시하고로, 그날 이후 부터는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는 미물처럼 됩니다. 전에는 전혀 믿지도 않았고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신에 대한 문제가 이토록 중한 것인줄 인식하는 순간 그의 가치체계는 송두리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무덤 넘어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서 먼저 알고 귀한 것을 귀한줄 알고 준비하고 채우도록 합시다. 세상의 것은 무덤 넘어에 갖고 갈 수도 없고, 갖고 간다해도 무가치한 것들이므로 얻으려고 힘쓰며 죄짓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안될 것입니다.

2) 그날 이후 즉 무덤 넘어의 세계에서는 기도해도 이미 때가 늦은 시간이 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게오르규의 25시나 제8요일이라는 말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기도문을 암송은 했지만 참 기도를 드릴 줄 몰랐던 유대인들은 무덤 너머의 세계에서는 구해도 허락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식적 종교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지 못하고 만날 만한 때에 만날 수 없는 것은 매우 불행입니다.

자기 영혼을 Satan에게 팔아서 그 댓가로 세상에서 제한된 시간동안 열락을 누리고 자기 소원을 성취한 Faust처럼 그러나 다가오는 약속의 시간이 두려워 표류하는 현대판 Faust들이 오늘도 세상 열락도 취하고 싶으나 다가올 미래의 무덤 넘어의 일을 두려워하며 고민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3. 무덤 넘어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힘입으려면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무덤 이편에서 맺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지난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회개하고 남의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합니다. 예컨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4배나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믿음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 없이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고로 믿음과 회개는 함께 나오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장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해 내어 놓고 깊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바울사도는 죽음을 단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일 뿐 세상에서 말하듯 생명의 끝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세계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히 약속된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으며, 영과 육을 함께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체적 죽음을 전혀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지듯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수수께끼인 무덤의 의미를 풀고 오곡백과 만발한 추석절에 무덤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예배순서 4면에)

순례자칼럼

眞理와 사랑으로 傳하자.

유수영 전도사

최근 일본의 한 책은 우리를 경악시키고 있다. 제목하여 「추한 한국인」, 저자는 유령인물이며, 내용에서는 과거 일본이 한국에서 행정, 재정, 토지법, 교육, 문화 심지어는 국민공덕심과 법준수정신까지 혜택을 주어 한국이 오늘의 근대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한국인은 체면존중, 개인주의사고가 강하며 열등감과 과당이 심하고 자제심이 부족한 민족이었던 바 전후의 모든 어려움을 日本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배은하는 행위라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책이 연 5개월동안 베스트셀러 10위안에 들고 있으며 많은 일본국민들이 그 내용에 통쾌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거짓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리며, 또 어둠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지 우리는 짐작기도 힘들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많은 입술들이 입술을 열어 잘못된 소문과 마음대로의 판단을 발했으며 또 그것을 들은 입술은 더 큰 거짓을 전해왔다. 또 정죄받은 입술은 같은 정죄를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목격된 사실보다는 진리를 전해야 한다. 또 전하되 사랑으로 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오는 감동으로 내 온몸이 그것을 표현하여 이웃의 그 깊은 곳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웃이 아무리 어려워도 버리지 않으며, 아무리 교만해도 미워하지 않으며, 아무리 핍박해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기다리며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이 사랑작전은 성공하여 열매되고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 나머지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실 것이다.

지금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이 함께 할 때다. 황금빛 풍성한 거둬의 계절에 주님의 긍휼을 바라야 될 때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진정 그 열매를 위하여 우리 주님처럼 눈물로 진리와 사랑의 씨를 뿌리자.

사고

순례자에서는 성도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특히 3면에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라는 고정란을 신설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예배당을 짓게 하소서.
2. 목회자 세미나의 은혜스러운 진행을 위하여.
3. 추석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2. 추석절 예배 순서(온 가족이 다함께)

목도	다함께
성시	요11:25-26인도자
찬송	312다함께
기도	인도자(혹은 다른 식구)
성경봉독	벧전1:24, 25, 눅16:19-31인도자
말씀	무덤을 넘어서인도자
찬송	460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이중운 목사는 극동방송을 통해 「나의 갈길 다가도록」이란 프

로그램으로 방송설교를 새롭게 시작한다.

방송설교는 오는 10월 8일 (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7시 30분까지 30분간 진행한다.



김상철집사(5교구)는 「7일간 의 서울시장」이란 신앙 간증서를

펴내고 오는 9월 28일(화) 오전 7시 한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감리교 여선교회관에서 이중운 목사를 모시고 출판감사예배를 드린다.

방문

필리핀 국회의원 가족 6명이 지난 9월 20일(월) 강남 YM-CA 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목

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들은 이춘복 선교사의 안내로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한국 목회자들의 교회 갱신을 위한 열정에 탄복하였다.



• 금주의 목회자 세미나 안내 •

제 1 교 시	일시	제 2 교 시
14:00-15:30(90분)		15:50-17:20(90분)
성경적 교회성장 원리	27일	주기철의 목회와 순교 민 경 배 교수 •연세대
이 중 윤 목사 •서울장로교회 •Ph. D., Univ. of St. Andrews, (영국)	10월 4일	피너(CG. Finney)의 설교와 영성 원 중 천 교수 •아세아신대

■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00 II 오전 11:00 III 오후 2:00
찬양 예배	오후 5:00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12: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 교회약도

